

종합·해설

지방의원 비례대표 20~30% 확대 되나

정개특위 논의... 전남도의회 9~14명 증가 예상 민주당 일색 광주·전남 지방의회 변화바람 기대

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장 김충조 의원)가 현재 10% 수준인 지방의원 비례대표를 20~3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방안이 결정될 경우 민주당 일색이었던 지방의회에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7일 정개특위에 따르면 최근 10% 수준인 지방의원 비례대표를 20~30%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후보자가 1인인 단독 출마지역인 경우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와 같이 무투표 당선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비례대표 확대 방안이 결정되면 광주시의회 비례대표는 지역구 16명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현재 3명에서 4~5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전남도의회도 지역구 46명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현재 비례대표 5명에서 9~14명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시·군·구의원 비례대표도 늘어난

다. 현재 비례대표가 1명인 광주 동구의회 의회의 경우 2~3명으로 늘어나고, 비례대표가 2명인 북구의회(지역구 의원 18명)의 경우는 4~6명으로 증가하게 된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독점하다시피 한 광주·전남지역 지방의회에 민주노동당과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진출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는 것이 지역 정치권의 분석이다.

그동안 광주·전남지역 지방의회에는 비례대표를 포함, 민노당이나 한나라당 소속 의원은 많아야 1명 정도에 불과했다. 하지만, 비례대표 의원수가 늘어날 경우 민노당과 한나라당 소속의 지방의원이 현재보다 2~3배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때문에 한나라당 전남도당(위원장 김기홍)은 비례대표 확대 방안을 환영했다.

한나라당 전남도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영·호남 지방이 지역감정에 사로잡혀 우리의 살림을 망코 있는 풀

뿌리 민주주의에서조차 일당독주형태가 지속되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의 피해로 돌아온다"며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는 광역·기초의회에서 최소한의 자리만큼이라도 각 당에 안배해 독불장군식의 자치단체운영만은 막아야 할 것이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비례대표를 확대할 경우의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정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위원장직을 접거하자 한나라당 의원들이 제지하는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이 서로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원정수가 크게 늘어 의정비 증가 등 부작용이 뒤따르 것으로 예상돼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같은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비례대표를 늘릴 경우 지역구 의원 수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지역구 의원 수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 난색을 표명해 협의

도출에는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서갑원 의원(순천)은 "비례대표가 확대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나 광역·기초의회 운영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면서 "하지만 의원정수와 관련해 한나라당과 이견이 커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李대통령, 中 시진핑 접견

이명박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중국 유력한 차기 지도자로 꼽히는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을 접견, 조찬을 함께하며 북한에 비핵화 실현을 위해 양국이 공동의 노력을 강화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내년 한 해가 북한 핵 문제를 풀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중국이 더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시진핑 부주석은 "한반도 정세는 한국 양국과 긴밀한 관계를

찾고 있으며 최근 들어 아주 큰 변화를 맞고 있다"면서 "양측은 좋은 시기를 잘 택해 한반도 정세가 계속 좋은 방향으로 발전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과 시 부주석은 2010년 상하이 박람회 및 2012년 여수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적극 협력기로 했다. 시 부주석은 "이 대통령께서 상하이 엑스포에 참석해 주면 참 좋겠다"며 2010년 상하이 박람회에 초청했으며 이 대통령은 "여수 엑스포에도 중국이 많이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임동욱기자 tuim@

“휴먼시티 복지 공동체” 광주 만들겠다”

양형일 전 의원 광주시장 출마 공식 선언

양형일 전 국회의원은 17일 “5·18을 통해 세계가 인정하는 민주·인권·평화의 광주 가치가 시민의 삶 속에서 실제로 살아 움직이는 시민 중심의 ‘휴먼시티 복지 공동체’ 광주를 만들겠다”며 내년 광주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양 전 의원은 이날 민주당 광주시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일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질 좋은 성장’ ▲장애·노후·의료·주택·보육·교육·실업 지원책 등 기본 생활복지를 대폭 확대 시행하는 ‘따뜻한 복지’ ▲지역 현안 해소를 위해 민사회와 부단히 대화하는 ‘원활한 소통’ 등 3대 시정 지표를 제시했다.

양 전 의원은 “기아자동차와 삼성 가전공장의 규모를 뛰어넘는 기업의 투자 유치, 글로벌 녹색산업 및 문화산업 등 고부가 미대 성장산업 육성을 통해 전국 최하위권에 머무는 지역의 GRDP를 획기적으로 개선, 지속 가능한 ‘복지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며 생산업 복지체제 구축을 강조했다.

그는 또 “참신하고 깨끗한, 혁신적



인 리더십으로 광주의 품격과 인본도시의 자존심을 살릴 시민 주권시대를 새롭게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51년 광주 출신인 양 전 의원은 광주서중과 광주상고, 조선대 법대 졸업했으며 조선대 총장, 제17대 국회의원, 열린우리당 광주시장 위원장 등을 지냈다.

관련 양 전 의원이 이날 공식 출마 선언을 함에 따라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경선 참여를 공식화한 정치인은 정동채 전 문광부장관과 양 전 의원 두 사람이 됐다. 무소속인 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은 오는 21일 광주시장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전남 증액 예산 물거품 우려

여야 예산안 정면 충돌... 연말 국회 파행 불보듯

국적인 타협 가능성이 제기됐던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가 결국 정면충돌하면서 국회 상임위에서 증액된 광주·전남지역 국고 지키기에 비상이 걸렸다.

한나라당은 17일 오전 친박연대와

공조,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예결소위 구성안 의결에 나섰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 40여명은 한나라당 단독의 계수조정소위 구성을 저지하기 위해 예결위 회의장으로 진입, 위원장직을 점거했다.

이후 민주당 의원들이 회의장으로 들어가 민주당의 실력저지에 동참했으며, 위원장직 주변에선 여야 의원들이 대치하며 격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결국 한나라당 심재철 예결위원장은 10시44분 의사봉 대신 주먹으로 탁자를 두드리며 개회와 정회를 동시에 선언했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곧 회의장에서 철수했다.

이후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계수조정 소위 구성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히 내년도 예산안 강행처리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반해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영수회담 이후 4대강에 대해 민주당이 요구한 국민적 요구사항에 대한 해법을 찾은 뒤에 계수조정 소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밝히, 실력 저지를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따라 야당의 실력저지에도 불구하고, 결국 여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 연말 국회에 파행으로 치닫

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런 상황이 전개될 경우, 아시아문화전당 건설, 호남고속철도 건설, F1 경기장 건설,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이설, 광주 진곡산단 진입도로 건설, 북부순환도로 건설 등 국회 상임위에서 증액되거나 새로 반영된 내년도 국고 사업 예산이 모두 물거품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2015 광주 U대회 지원법 등 지역 현안 법안 처리도 물 건너 갈 전망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마우리도 전역 어디/ 딱한 류필기 / 김영 - www.kimyoung.co.kr

전남대편입 6주완성 문제들이

STEP 1 STEP 2 STEP 3

김영 편입학원

심야전기를 못쓰는 영업장소에 최고의 선택!

전기보일러

심야전기를 못쓰는 영업장소에 최고의 선택!

심야전기를 못쓰는 영업장소에 최고의 선택!

광주대리점 089-880-8288
삼우상사

남성 헤어 기능장 후 大山프리모님네가발

타사제품 보상판대 **프리모님네가발**

초슬림!! **각 필 50** **만원~**

귀여의 황후님 반력을 놓여주는 **영원한 헤어자가 되겠습니다.**

대표전화 082-673-5858, 677-4822
주말 휴일 미 수 제 011-600-0655